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細眞駐在所의 變死事件 — 本件을 糾明하라 —

一

黃海道豐川支局電話에 依하면 松禾郡豐川面細眞里姜某라는 老人은 二十四日同里駐在所熊川某及姜某의 兩巡査部長及巡査의 取調를 밧다가 突然 昏睡狀態에 빠저 그 家族에게 引渡되엇는바 醫師의 應急治療도 効驗업시 同日 그만 絶命하얏다 한다。松禾檢事局으로부터는 松禾警察署長이오、同檢事局檢事事務取扱인 國分氏가 中西書記와 公醫警部補를 同伴하고 現地에 나아가 屍體를 檢案하고、同署長은 事件이 自己監督下에 잇는 細眞里의 駐在所에서 생긴것인마큼 그 事件 糾明에 努力하겟다는 것을 言明하얏다 하거니와 吾人은 이가튼 不祥事가 警察官駐在所에서 생긴것을 매우 遺憾으로 생각한다。

二

무릇 警察은 人民의 保護의 責任을 가젓다。人民間에 互相言爭이 잇다할지라도 이것을 仲裁할 義務가 잇고、人民間에 暴行이 잇다할지라도 이것을 挽留할 責務가 잇다。그러므로 警官이 人民에게 暴行을 加하거나 況 拷問가튼것을 警察內에서 行하는것은 잇슬수업는 일이다。그런데 이번 細眞里事件은 아즉 警官의 暴行에 依하야 發生된것인지 그 眞否를 判斷키 難하나、一部로부터 그러한 疑心을 사게한것만이라도 警察을 爲하야 遺憾으로 여기지 안홀수업다。

三

當局은 拷問의 絶對업는것을 言明한다。또 事實에 잇서서도 근래 以前과가티 苛酷한 笞刑其他 殘忍한 拷問이 업서진것도 認定한다。그러나 間或 監督當局의 方針에 不拘하고 地方警察로부터 拷問이 잇는것처럼 風聞이 들리는것은 事實아니기를 바라는바이나 吾人이 듯는것만하드래도 一大 遺憾으로 생각한다。

四

勿論當局에서 말하는것과가티 多數警官가운데에는 當局의 根本精神을 理解치 못하고 往往法規에 어그러진 人權蹂躪을 敢行하는 者가 잇슬수도 잇다。그러나 一、二警官의 失手라할지라도 人民側으로 생각할때엔 一、二警官이 各各當局의 意思를 表示하는것처럼 생각되나니 이는 朝鮮과가티 民權이 弱하고 官權이 强한 社會일수록 一層그런 感情을 가지고 잇는것이다。그러므로 當局은 모름지이 一、二警官의 一擧手一投足이라도 人民의 權利를 侵害할 行動을 못하게 할것이니 當局이 그 警官을 다른 社會보다 一層 더 愼重히 監督할 義務가 잇다고 밋는다。그런 意味에서 今次의 細眞里駐在所 事件은 警官의 責任을 徹底 糾明할 義務가 잇는줄 밋는다。監督當局의 徹底한 眞相調査及責任所在의 解明을 바라는바이다。

中國이 蠶食됨을 到底히 不忍坐視
中國을 爲하야 英米協調力說
로이드·쪼ー지氏演說

로이드·쪼ー지氏

【버밍감二十六日發聯合】英政界의 無軌道軍 로이드쪼지氏는 最近에 英政府의 方針을 標榜하야 政界에 一大波瀾을 惹起하야 朝野의 視聽을 一身에 集中하고잇는바 二十六日에 또 버밍감에서 極東問題에 關하야 「世界平和를 保持키 爲하야 英米는 協調하라」는 演說을 行하얏다

余는 極東의 事態에 鑑하야 英米兩國이 五相提携할때가 接近하엿다고 切實히 늣긴다 英米兩國이 이以上 沈默을 직히어 極東의 事態를 그대로 放置하면 結果는 드듸어 救할수 업게될것이다 自己는 中國의 幾千平方哩나되는 廣大한 地面이 全部蠶食되어감을 到底히 坐視할수업다 我等은 어떠케든지 이를 防止치 안흐면 안된다

中國經濟救濟次 世界經濟會議開催? 外省、米國의 招請促進乎

【電通東京電話】米國政府의 銀價引上政策에 伴하야 中國의 銀流出은 巨額에 達하게되며 中國經濟界를 混亂에 陷케하야 經濟危機를 招來하고잇는데 對하야 廿五日下院에서 政友會의 濱田國松氏도 外相의 注意를 喚起한바잇섯는데 外務當局도 事態를 重大視하고 東亞에 잇서 唯一한 安定勢力인 責務에 鑑하야 近近何等具體的 方策을 考究中이다 그리고 國民政府는 銀의 逃避에 備케하기 爲하야 諸種對策을 講究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銀流出을 防止할수업고 昨年度는 드듸어 二億元을 突破하엿다 그런데 右銀流出은 米國政府의 銀價昂騰政策에 基하는것임으로 中國經濟界의 混亂을 防止함에는 오직 米國의 銀政策緩和를 기다릴수밧게 업고 그리고 米國의 銀뿔럭의 勢力은 益益增大하는 傾向임으로 日本政府도 中國의 經濟機構崩潰를 防止키 爲하야 中國에 對하야 어떤 友好的 措置를 考究치 안흐면 안될것이라하야 外務當局은 近近米國政府에 對하야 世界經濟會議의 招請에 依하야 同國의 招集을 積極的으로 慫慂하리라고 觀測된다

蘇勢力下의 新疆省 中央政府對策에 苦心 省主席盛氏에 詰問電發

【南京二十六日發聯合】新疆省이 蘇聯邦의 勢力下에 歸한것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新疆省首席盛世才氏는 新疆省內의 實情을 暴露하자 크게 狼狽하야 中央政府에 新疆省과 蘇聯邦과의 關係는 單히 通商事項에만 限定되여잇다는것과 딸아서 蘇聯邦과 最近締結한 借款은 商業的性質의 것이라하야 그 辯護에 크게 努力하고잇는데 此에 對하야 中央政府에는 借款及顧問의 招聘은 元來行政院의 認可를 바들 必要가 잇다하야 速히 借款契約條文과 顧問의 國籍氏名職務等을 詳細히 通告하도록 嚴重詰問電報를 發하엿다

中國의 通信檢閱 外國通信員苦悶

【北平二十六日發聯合】察哈爾綏遠兩國境衝突事件은 二十三、四日의 兩日의 戰鬪로서 거이 終熄되야 目下平和工作이 進捗中인데 該事件이 各國에 極히 誇大히 報道되는 模樣으로 北平駐在의 各國通信員은 自己의 通信이 너머나 誇大히 傳해진것을 도리혀 驚愕하고잇는 狀態이다 特히 北平政務整理委員會北平軍事分會에서는 右事件에 關한 電報의 檢閱을 嚴重히 하야 中國側에 조곰이라도 不利한곳은 거침업시 削除하고 有利한곳은 過大히 取扱하는데에 關하여는 各國通信員도 頭痛中이라한다

大灘附近에서 日中善後策協議

【北平二十六日發聯合】綏東事件의 善後處置에 關하야 北平駐在武官高橋中佐松井中佐는 二十六日午前中國側代表殷同氏等과 武官室에서 會見協議를 行한 結果 大灘附近에서 再次會見을 行하자고 決定하엿는데 中國側은 于先宋哲元 何應欽兩氏와 協議키로하고 散會하엿다 二十六七兩日中에는 中國側으로부터 回答이 잇슬터이다 右會見後松井中佐는 如左히 말하얏다

今日中國側과 會見한 結果 大灘附近에서 日中雙方代表가 會見하자고 意見이 一致되엿는데 中國代表宋哲元何應欽兩氏와 協議할 必要가 잇다하야 아직 時日도 場所도 決定되지못하얏스나 모다 速히 解決하자는 意向임으로 今明日中에 決定될터이나 日本側은 永見隊長을 보낼듯하다

宋軍善後處置와 特務關長談

【電通北平二十六日發】今朝宋哲元과 善後處置折衝會議에 列席한 天津軍特務機關長 松井中佐는 如左히 말하엿다

只今形便으로는 大灘熱河省大灘附近의 某地點에서 善後處置會議를 開하게될 模樣이나 確定的은 아니다 그期日及中國側代表에 關하여는 目下何應欽、宋哲元等이 相議中이다 中國側으로부터 會合을 申請하여오면 日本側에는 그準備는 잇스나 어떠한 協定을 할지도는 折衝의 內容如何에 잇다 中國側의 態度如何에 잇는 것이어 中國側의 不信行爲로부터 事態가 가리되는以上 中國側에 陣地構築其他挑戰的意思가 업는것이 明瞭히 되면 事件擴大는 願치안는 터로 原則으로서 서로 誠意를 披瀝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解決식히고 십다 그리고 善後會議의 日時、地點等은 一兩日中에 決定되리라고 생각한다

察市廟赤衛軍 不法射擊眞相

【電通滿洲里二十六日發】할하廟의 赤衛隊不法射擊事件의 眞相은 二十六日에 如左히 判明되엿다 일직히 國境線三方里를 侵犯하야 할하廟를 中心으로 橫行하고잇는 外蒙赤軍을 偵察할目的으로 向한 瀨尾指導官指揮의 約○○名이 훈드론에 到着하야 二十四日正午에 斥候偵察을 行하며 할하에 接近하자 敵은 屋內에서 亂射함으로 日本軍도 直時應戰하야 二時間後에 敵을 擊退하엿다 이 戰鬪에 잇서 日本側의 損害는 瀨尾指導官及兵一名戰死 兵一名重傷인데 敵의 死傷은 不明하다

林陸相來五月에 渡滿키로決定

【東京電話聯合】林陸相은 對滿事務局總裁를 兼任키로되엿슴으로 議會終了後 滿洲의 實情視察을 갈 希望을 가지고잇든바 來五月約三週間乃至一個月豫定으로 渡滿키로

世界週史

外蒙赤軍과 滿軍衝突

一月八日 外蒙赤軍數十名이 바이칼湖附近의 漁場을 占領할目的으로 滿洲國境을 侵入하야 할하 강 차리지三河의 三角地帶를 占據하엿다는 報道를 接하고 二十四日 興安省北警備軍은 該地方을 警備키 爲하야 一部隊를 하간지廟方面으로 派遣하엿든바 赤軍의 有無를 偵察키 爲하야 同方面에 接近하엿든 軍事敎官本田少佐以下十一名과 外蒙赤軍과의 사이에 射擊衝突이 이러나게되여 潮野中尉及兵士一名이 戰死하고 下士官一名이 重傷을 負하게되자 滿洲國當局은 重大決意를 牽固히하고 海拉爾로부터 軍隊를 赤派하야 應援中이다

잘의 나치스系撤去

잘人民投票結果 獨逸歸屬으로 決定되자 最後까지 現狀維持를 主張하든 잘住民은 脫獄 國境을 너머 佛國으로 避難中이던데 에리오無任所相의 觀說에 依하면 이미 二千五百名의 잘住民이 佛國에 入國하엿스며 佛政府는 그의 大部分을 南佛에 移住식히고잇다한다

宋軍討伐中止

宋哲元軍의 滿洲國侵入에 對하야 關東軍은 去十八日討伐을 開始하는 同時에 何應欽氏는 卽時此를 承諾하고 또 宋哲元氏도 部下全軍에 撤退命令을 나리여 撤退하고잇슴으로 關東軍도 討伐을 中止하기로 되엿다

北鐵交涉成立

昭和八年六月二十六日 第一回의 會談을 開始한 以來 波瀾을 거듭하기 一年七個月에 亘하엿든 北鐵讓渡交涉은 蘇聯側의 讓步로 二十一日深更東鄕까즈름스키第八次會談에서 細目協定에 對한 最後의 解決에 到達하게되여 北鐵讓渡는 마츰내 圓滿解決을 遂하게되엿다 따라서 日滿蘇三國委員으로 組織된 協定委員會에서 協定案文을 作成하야 三月下旬에 三國代表의 調用을 行하기로되엿든데 讓渡價格은 一億四千萬圓 支拂方法은 三分之一은 現金으로하고 殘餘는 物資로서 하기로 決定되엿다

氷上競技에서 金君制覇

明年二月 獨逸갈밋쉬에서 열릴 世界올림픽 冬技競技에 參加할 選手選拔을 兼한 第六回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는 二十二日日光에서 開催되엿는데 同大會에잇서 一千米 一萬米스피드競技에서 日本新記錄으로 金正淵君이 優勝하엿스며 全日本選手權에 光榮잇는 第一位를 차지하엿다

共軍의 重慶迫到

貴州省中央部를 縱斷하야 四川省南部를 迫하고잇든 朱毛의 共産軍六萬은 目下主力을 貴州北部에두고 共先鋒一隊는 合江附近에 나타나 重慶을 迫하고잇다 此에 猶猊한 劉湘軍은 合江瀘州方面의 防備를 斷念하고 專혀 重慶守備에 注力하는 一方 上海로부터 軍艦增派를 要請하고잇다

墺國大統領候補로 유잔太公指名

墺國大統領미클라스氏의 任期는 來十月로써 滿了됨으로 政府關係와 政界有力者가 十九日夜秘密會議를 開催하고 後任大統領을 銓衡한 結果 칼ー世의 從弟유잔太公을 指名하엿다고한다 萬一 이것이 實現되면 歐洲大戰에 瓦解되엿든 합스부르그家가 드듸어 共和國新憲法下에 再次墺太利의 主權을 把握하게될것이며 따라 오토太公의 復辟現實의 前兆라고 觀測된다

床次氏의 五十萬元事件
問題解決의『열쇠』쥔 鶴岡氏蹤跡杳然
事件關係者로 죽엇다던 赤塚氏生存判明
注目되는 今後進展

問題의人物床次遞相

【電通東京電話】政友會의 山口義一氏가 暴露한 床次遞相에 關한 五十萬元問題의 當面人物元代議士 鶴岡和文、元總領事 赤塚正助兩氏中 赤塚氏는 이미 死去하야 事件解決의 關鍵는 한갓 鶴岡氏의 掌中에 잇다고 傳하든데 이 鶴岡氏가 問題突發과 同時에 어데로 蹤跡을 감추어 地下에 潛入하엿슴으로 事件은 果然 議政壇上의 虛虛實實을 띄나 怪奇味를 띄게되엿다 그런데 이미 死亡하엿다는 赤塚正助氏가 健全히 살어잇는 事實이 判明되야 事件은 점점 興味를 끌고잇는데 本鄕片町에 잇는 赤塚邸에서는 어데서 그러한 말이 나왓는지 全然 알수업다고 怪訝히 넉이고잇다

赤塚氏는 明治三十年東大英法科를 卒業한後 外交官生活을하다가 昭和二年에 鹿兒島로부터 衆議院議員에 選出되엿섯는데 現在는 無職이다 일직히 床次氏의 知遇를 바더 問題의 五十萬元을 張學良으로부터 受取하엿다는것은 床次氏가 渡中한 昭和三年의 翌年 即四年봄에 鶴岡和文氏와함께 渡中한때의 일이라한다

自宅에서는 二、三日前에 旅行가고업다고 稱하고잇스나 出發한 時間과 行先은 알수업다고 一切緘口不言하야 同氏의 消息을 말하기를 避하고잇다 鶴岡氏의 潛跡과함께 疑雲이 濃厚하야 事件의 重大關係人物이 사러젓다 죽엇다하는것은 問題의 五十萬元事件과함께 자못 世人의 注目을 끌고잇다

蔣氏와 會見코저 鈴木中將南京向

【南京二十七日發聯合】蔣介石氏는 晝者外交部次長 唐有壬氏及 南京駐在武官을 通하야 鈴木中將에 會見을 懇望하여왓슴으로 鈴木中將은 影佐武官同道 二十八日午前十時上海發 入京하야 須磨總領事와 協議後 二十九日午前蔣介石氏와 會見키로되엿다

關大阪市長逝去

【電通大阪電話】貴族院議員大阪市長關一氏는 腸窒扶斯로 大阪市天王寺區上本町自宅에서 療養中이든바 二十六日午後十一時五分逝去 享年六十三

廿八日兩院日程

貴族院=午前十時 本會議를 開會 國務大臣의 施政演說에 對한 質疑續行、津村重舍氏 「一般施政方針」 村田省藏氏 「司法權의 運用에 關하야」 二荒芳德氏 「社會敎育思想에 關한 事件」에 對하야 各其質疑할터이다

政友會內、解散廻避論者大會開催
山口義一氏의「爆彈質問」을 圍繞코 黨內軋轢益益表面化

【東京電話聯合】政友會의 床次系及解散廻避論者인 三十九名은 上原、伊藤(仁)兩氏의 發起에 依하야 二十六日 午後六時부터 芝區飛行會館에 參集하야 今後政友會로서 取할 方策에 關하야 種種意見交換을 行하엿다 同席上에서 먼저 木本氏가 緊急代議士會에서 有志代議士十名이 決定한

一、近時政友會의 行動으로서 世論의 指彈을 밧는것이 만타 이에 關하여는 그 責任을 明確히 하야 黨幹部及總裁에 밋치게하지 말것

一、擧國一致를 要할 時局에 鑑하야 我黨은 早히 國家本位에 立脚하야 行動할것

의 二項을 提示하야 이를 直時 幹部에 決議로하자고 意見을 폇스나 結局幹事를 내여 再次會合하기로 決定하고 同九時에 散會하엿다 그런데 右會合에 出席한 諸氏의 意向은 大體로 解散을 廻避하려는 見地下에 爆彈質問의 善後處置를 하려는것으로 床次遞相의 綱紀問題에 關하여는 攻勢的 態度를 取하는 一面 總會에서 이를 斷行함을 極度로 忌避할 意向임으로 緊急代議士會의 今後의 動向은 目下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잇다 이에 對하야 放任主義로 決定한다 하나 一部幹部는 이러면 차라리 이를 脫退하라는 意向을 가지고 잇슴으로 黨有志代議士會의 推移와 함께 幹部의 態度는 자못 注目된다

【東京電話】政友會의 山口義一氏가 터트린 爆彈質問은 極度로 黨內를 刺戟하야 床次系及이에 好意를 가지고잇는 舊政友系의 一派는 서로 協議를 거듭하야 對策을 研究中인데 二十六日午前院內에서 開催된 近衛閣體의 集合及 午後五時부터 東京會館에서 開催된 床次系 會合에서 드듸어 硬化한 床次系의 內部抗爭狀態가 表面에 暴露되게 되엿다 此等의 一派는 國家本位 政友更生을 旗幟로하야 爆彈質問의 善後處置、爆彈質問의 眞相을 要求하는 一方에 잇서 主流幹部派는 일마다 政友會의 뜻을 마추어 黨의 行動에 對하야 自省을 요구하는 床次派及舊政友系一派의 態度에 憤慨하야 이가튼 不純한 分子를 淸算할것이라하야 차라리 解散을 廻避하야 自己의 安全을 追求하려는것이라 … 黨內에는 深刻化되고잇는 狀態인바 善後處置 其他 一切 懸案을 解決할 時期가 到來되면 如何한 事態가 惹起될지도 알수업서 그 推移는 注目된다

北滿鐵道問題로 日米公文書發表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國務省은 二十六日까지 國務省文庫內에 極秘裡에 保存하야 一切公開되지안튼 東中鐵道問題에 關한 日米交換公文書를 發表하엿다 發表公文書는 一九一九年一月九日부터 十二月四日에 일으는 期間에 日米兩國間에 交換된 危機及蘇聯問題로 日本이 當時東中鐵道를 獲得키爲하야 種種米政府와 折衝한 經緯及一方米國이 이에 反對하야 日本政府及中國政府에 對하야 意思表示를 한것인데 때마츰 日蘇間에 北鐵讓渡細目協定이 事實上成立된때이니만큼 자못 一般의 注目을 끌고잇다 發表公文書의 主要內容은 如左하다

一、一九一九年東中鐵道管理局長으로부터 國務省에의 報告內容은 日本의 東中鐵道經緯

一、當時의 駐日米大使 모리스氏로부터 國務省에의 電報內容은 東中鐵道國際共同管理問題에 對한 日本反對의 主旨

二、모리스大使가 國務省에 보낸 日本政府의 單獨管理要求에 對한 報告電報及이에 對한 國務省側의 拒絕的內容

一、共後東中鐵道의 財政狀態를 理由로 提議된 日本諸銀行으로부터의 借款計劃에 對한 日米關係當局往復文書

松平大使辭任說 六月頃歸國을 豫定

【電通東京電話】駐英大使松平恒雄氏는 일즉부터 辭任希望을 가지고 잇섯는데 廣田外相에 對하야 辭任의 了解를 求하고잇섯다 廣田外相은 近近同大使의 後任選定에 着手하게되는 模樣이다 그리고 廣田外相도 一段落을 보앗스므로 英國皇帝卽位二十五年紀念式典에 日本代表로서 同大使를 參列식힐 意向임으로 同大使의 歸國은 大體六月頃이 될 豫定이다 그리고 同大使의 歸國後 그 辭任을 承認할 意向이며 同大使의 更迭이 行할것인데 此에 伴하야 相當規模의 外交官異動을 作하야 在外使臣의 刷新을 圖할것으로 觀測된다

日銀納付金制度改正法律案提出 二十五日衆議院

【電通東京電話】政府는 二十五日午後衆議院에 日本銀行納付金制度改正法律案을 提出하엿다

聯盟對中援助委員 아ー스氏夫妻橫濱着

【橫濱電話】라이히만氏의 後任으로서 國際聯盟對中援助委員長에 任命된 聯盟交通部長 아ー스氏는 夫人同伴 赴任途中 廿六日엠프레스·오브·카나다號로 橫濱에 寄港하엿는데 同氏는 二年前 라인一行의 書記長으로서 東洋에 왓든일이잇는 이로 同氏의 言動은 자못 注目되는데 船中에서 氏는 如左히 말하얏다

「昨年十二月廿九日에 주네브를 出發하야 急行하여왓다 中國에 가서는 이미 聯盟委員會에서 決定된대로 中國政府의 技術的 에드바이서로 가될 外에 何等政治的任務는 絕對로 띄지 안핫다 重光外務次官과는 舊知인데 同氏가 面會하자고하면 面會할지도 알수업다 聯盟으로부터는 特別히 日本政府를 訪問하라는 命令은 밧지 안하엿다 過般汪行政院長이 『日中은 提携하여가지 안하면 안된다 그러려면 日本의 經濟的援助가 絕對로 必要하다』고 말한 模樣인데 萬若事實이라면 東洋平和를 爲하야 慶賀할일이다」

히틀러ー大統領 『나치스』軍改組着手
二萬三千의 黑色隊를 別個隊로 데氏를 親衛隊長에

【伯林二十六日發聯合】잘歸屬問題가 決定되자 今日獨逸의 再軍備問題가 再次歐羅巴政界의 重大懸案으로서 復活되고잇는 이즈음 히틀러總統은 突然 나치스黨內組織特히 半軍事的組織인 나치스軍의 改組에 着手하고잇슴은 國際的으로는 勿論國內的으로도 國防軍側과 나치스軍과의 感情的對立問題等과 아울러 注視되는데 傳하는바에 依하면 히틀러總統은 改組의 第一着으로 나치스軍首腦部의 更迭을 斷行코저 人事異動을 하기로 되엿는데 그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一、黑色親衛隊長

하인리히·시무러氏의 現職을 免하고 新設되는 保安相에 任命할 保安相은 秘密國家警察을 包含한 警察을 統轄하는것이므로 秘密警察은 親衛隊長의 管轄下에 두기로함

一、總統保衛隊長 데트리히氏를 黑色親衛隊長에 任命하야 시무러氏의 뒤를 잇게함

但 總統親衛隊員二萬人及國內治安維持를 目的으로 訓練된 伯林、케른、케니히스베르히의 四部隊三千名合計二萬三千名의 黑色親衛隊員을 除하야 別個의 部隊로 加하야 强化함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 寡女再嫁 無論貴賤 任其自由라는 舊韓國機務處의 明文에 依하야 總督府가 再嫁를 다시 奬勵。

◇ 喪妻한 男子에게는 亡妻의 出喪前에 再婚을 勸하는것이 親切한듯 薄情한 現代人心。

◇ 年少하고 子息도 업는 寡婦으로서 人生을 거저 늙어야만 될 理가 어데 잇슬것인가。

◇ 더욱이 生活조차 裕足하지 못하다면、누구를 밋고 무엇을 질기어 守節을 하리오。

◇ 그러나 第三者로서 左右키는 困難한 일、當者自身의 意思가 아니라하면 勸하기도 困難한 일。

◇ 道德이 許하고 法律이 許하는 以上、너희 젊은 寡婦는 自由意思를 實行할 機會를 잡으라。

日曜氣配

▲株式 은아직 氣迷狀態로 見送하나 轉賣의 氣味 利食賣가 問題 히되면 다시 引緊될것으로 보인다 大新八八、二〇 鐘新一二五、八〇 日產一〇〇、二〇 東新一三九、七〇

▲期米 正米는 産地가 强正關係로 賣惜하야 下押하는 氣味이나 定期는 採算이 첫스므로 이以上으로는 賣崩이 失將을것으로 보인다 市況은 尙國際수 비록 賀上은 느저진다 하드래도 深押은 希望하기 어렵고 도리혀 引締할 바게 업스리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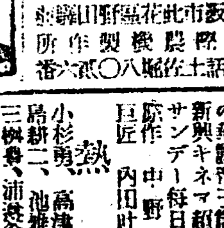
▲綿絲 不變

感氣의 安全療法 イマヅミン의 服用이 第一

【感氣는 萬病의 源】이라 조금만이라도 放心하야서는 무서운 結果가 납니다。解熱劑를 含有한 只今까지의 感氣藥으로써 一時的으로 熱을 낫더라도 危險하기 짝이 업고、大概 그것으로 失手합니다。가장 安全한 療法은 有名한 今津佛理博의 創製하야 解熱劑를 조금도 含有치 안흔 イマヅミン을 服用하는 것이 第一이다。本劑는 副作用 업고 熱、頭痛、기침、鼻塞、目 肺炎、喘息等의 呼吸器病과 神經痛의 惡化를 豫防한다。全國藥店에 有함 切時는 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研究所에

不老長壽는 極難하나 確然히 十年은 젊어진다
陰萎·生殖器衰弱에
腎氣不足·健忘症에
精力衰微·老衰防止에
貧血症·神經衰弱에
補血强精劑 敦益救
本劑가 世上에 頒布되자 海內海外諸人士께서 熱狂的 讚辭를 博受하며 見效의 感謝狀이 踏至하는 中이옵지다 其中 感謝文句에 確然히 十年은 젊어젓다는 絕讚을 보는 라도 藥效를 可히 斟酌할수잇습니다 本劑는 如何한 靈藥이가 지라 造血作用과 元氣旺盛을 兼備하고 其作用은 極히 妙한 者케하며 局部細胞의 活力을 旺盛케하야 衰退한 機能을 着着復活케하는 特殊効力을 發揮하고 本劑를 服用十日에 ○部勃起力이 增進하고 服用一個月에 精力이 倍增하야 老衰之人으로 能히 靑年以上의 快感을 得하는 것을 保證한다 精力을 發揮하고 老衰를 防止하고저 하는 사람이여 疑心치 말고 敦益救를 服用하야 靑春의 快感을 어드십시오
藥價 十五日分 二圓五十錢 卅日分 四圓 六十日分 七圓
京城府鐘路二丁目二十一 發賣元 普仁堂藥房 電話光化門二一二六番 振替口座京城五一六一番

恩給 立法救濟的 最有利金融方法 京城授恩洞一六〇 鄭商會

製繩機 新式藝打及綯機撚特許 大阪市此花區 石原機農作製所


當ル廿三日特別大公開 斷然巨篇發射!! 待望の名畵愛 如新春第六週の巨篇大公開!! 大新興キネマが輝然!!として全映畵界に鉛響の鐘を鳴らす稀有の華麗篇!!
新興キネマ超特級現代劇 サンデー每日連載 原作 中野實 監督 吉村廉
熱風 全拾三卷
小杉勇、高津慶子 主演 ...
地獄往來 全拾卷 原作 村上浪六 監督 村田正雄
ピアノ昇天 全壹卷
水標町 中央館

名曲의 出來!! 第二回吹込 울음을 한이업네 Columbia 콜럼비아레코ー드

中等生은內申書로 專門生은警察依賴

新春入學試驗期迫頭에따라 新入生思想檢討陣

학교당국이 갓가워오자 상급학교의입학시험기를 압두고 각종중등학교를 비롯하야 전문학교대학까지 일제히 신입생모집을 개시하는 동시에 신입학생의 선발방침에대하야 특히적색사상의 학교침입방지에 부심하고잇는때에 학무국에서도 이에대하야 특히주목하고경찰당국의 후원을 바더가지고신입학생자신의 사상경향 가정내의 사상관계 등에대하야 입학시험전에 엄밀한 고사를실행하도록 엄달하엿다 각학교에서는 학교적화의 방지책으로 재학생의 좌경화방지는 물론신입학생의 사상경향과소질을중요히 내사하야 적색사상침범의 예방을하려는것이라는데 중등학교에 잇서서는 신입학생의 가정관계와 초등학교 장의 내신서(內申書)에 의하야 사상관계를내사하고 전문학교와 대학에잇서서는 중등학교장의 내신의에 특히입학지원자에대하야는 원적지와 경찰서에 의탁하야 가정내의사상관계와 본인의 사상관계를 엄밀히 조사하야 입학시험자체의 고사이상 이것을 엄밀히심사하자는것이라한다

그리하야적색사상의방지진은경찰과사법당국의억압주체의강회책과아울러 사회사상단체가다당국에의한사상지도가진행되는동시에학교교육에잇서서도중요한문제로적화사상의 방지책이 구체화되며강화되야 때는마침소위사상수난시대를맞은듯감이잇는만치 주목을끄은다

慶州赤色勞組事件 來月初旬엔送局

禁酒斷煙貯蓄會로組織體假裝 檢擧活動은一段落

【大邱】 무보(前報)경주(慶州) 포항(浦項)을 중심하야 일어난검거선풍으로로동자、농민、어민등오십여명을 인치하여다가 경주포항량서에 류치하고밤낫을불러로 취조를계속해오든 적색비밀결사사건은 이제겨우 검거만은 일단락을지은모양이고 취조도아마 오는이월십일경에는 끗을내며 그조직체중에 가장중요한 책임자 리칠성(李七星)외팔명만 송국될려이라는데결사의 조직체내용을 듯건대재작년도 팔월중순경에 리칠성、리우(李雨)손봉호(孫鳳鎬)최수봉(崔秀鳳)량주호(梁周湖)등 오명이전괴리청성의집에회합하야경주적색로동조합 준비협의회(赤色勞働組合準備協議會)를 조직하고책임비서리칠성、선전부위원(宣傳部委員)리우、조직부위원(組織部委員)손봉호、련락부위원(連絡部委員)량주호、교통부위원(交通部委員)최수봉으로부서를정한후각방면으로주의선전과 동지획득에 노력하든중 동군내동면(內東面)사바공사로동자중에 손을빼치기시작하야 먼저 그들 로동자를상대로 잡화상을경영하는 최석윤(崔錫潤)을 획득한후 다시 두사방공사감독인 최문(崔玟)과 손을잡게되여 무난히그 로동자들가운데 활동할 게제를만드러 거게다 천문중책임자로 다시야체이카(細胞)를 조직하고 그표면단체로 금주단연저축회(禁酒斷煙貯蓄會)라일흠아래 회원십이명을 가지게되엿다한다이로부터활동은 더욱강화하게되여 지역별로책임을 분정하야포항의최수봉은중래포항 [illegible] 떼치지하고 감포의량주호는 [illegible]방(金暻方)과악수하고구룡포에기로 로농자협동회(勞農者協同會)를조직하고 「아제이카」를조직하고집선간으로괴관지를발행하고 [illegible] 등 농민동조의 활동을하엿스며 북면의 손봉호는그아우손래익(孫來益)과악수하고 그곳에로동야학원을설치하야농민과아동에게까지 괴회가잇는대로 주의선전에 노력해온것이라고한다 지금까지의예상으로 송국될자의 씨명은아래와 갓다

李七星、李雨、孫鳳鎬、孫[illegible] 崔周鳳、崔玫、崔秀峰、梁[illegible] 金暻方

食色自殺兩題!

結婚不如意를悲觀한女給과 生活難에憂鬱한靑年한명이

이십칠일오전 [illegible]시경에 시내관수동(觀水洞)에잇는바 [illegible]에남자한사람을 다리고와서 (술을) 먹고잇든 녀자가갑작이품에서 착산(醋酸)병을꺼내가지고마시고고민하는것을 곳인사동(仁寺洞) 영제병원(榮濟病院)에다려다가응급치료를밧고는 (송월동(松月洞)) 오십×번지의이오전기사나희의집으로 운반해갓스나 필경이십칠일오전열시경에 절명되엿다 녀자는페적을 철원(鐵原)에 두고 시내교북동(橋北洞) 옥천식당 (玉川食堂)에서 여급 노릇을하는 리옥순(李玉順)(二〇)으로서 약일년전부터시내모백화점점원인 최동수(崔東水)(假名)(二二)라는 전기사나히와 조와하고 지내오면서아프로 속히결혼하야 현재의깨끗지못한 화경에서 버서나리라는 큰꿈을가지고잇섯스나 최근에와서 사나히는녀자가 여급의몸이라고하야 정식으로 결혼할의사가 업는것을알고 이말을비관하고 이십칠일밤에 사나히를어지로끌고 나와서는 그의아페서약을마신것이라고한다

◇

이십칠일 오전두시경에 시내봉익동(鳳翼洞)십일번지의 섬사호 문원준(文元濬)(二八)은 자긔집에서 양재스물을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세부란스병원에입원시켜 치료를 가하는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그는 가정이극도로빈한하야 생활이 어려운것을비관하고 그만자살을계획한것이라고한다

굶는四男妹 보다못해窃盜

◇取調警官도落淚

【大田】 어린자식사남매를다리고 굶주림을참다못하야 일해주는주인집에서 쌀한되를훔처다먹고 법망에걸리게되야 형사에게 포박을당하자 천진란만한 어린자식들이 엄마하고 덤벼들드는것을보고 취조하는경관을 울리엿다는 비창한사실이잇다 대전읍영정(大田邑榮町)에사는박저필(朴渚必)은 채소행상을 하야가지고 열다섯살먹은아들을 보통학교에보내고 어린딸과한 살먹은어린아들의 사남매를길러오든바 요사이는 채소의시세가얼뿐아니라밋천이업서장사를하지못하게되니 먹고살수가 업서 그의처성씨(成氏)(三七)가대전형무소간수모의집에서 고용사리를 하야련명이라도하라 고생가하얏스나 하로중일 품판것이 겨우 십전밧게밧지를 못하게 되얏스니 여섯식구가 단돈십전으로 끄러먹을 수가업서어린자식들이 굶고안진것을 생각할때에 이런것저런것 생각할여지가 업시 주인집 두지에서쌀한되를훔처다가어린자식들을 먹이엿다 이것을알게된그집주인은 즉시경찰서에 고발하게되니 경찰에서는 즉시박저필의가택을 수색하는동시에 그의처성씨를구금하야 경찰서로 다리고갈라고할지음에 아무것도모르는 어린자식들은 처 모르고 덤벼드는 참아모를 정상으로지난 이십사일에 경찰에 묵치칙조중이나 만히도 동정할여지가잇다고한다

金鑛詐欺重大犯 鍾路署에서檢擧

시내종로서사법계에서는 이십칠일아츰에 수명의형사가 관내관철동회리관을 습격하고 그곳에묵고잇든 홍천군화촌면장성리(洪川郡化村面長城里)금광업리영수(李永壽)(假名)(三七)를 체포하엿는데 사건의내용을 드르면 그는방금종로경찰서에서 검거에착수한 대규모의금광사기사건의중요한관계자로서 금번금광매매의목적으로 상경한것을 종로서에수배하야 체포하게되것이라고한다

頻頻한市內怪火 警察은內査嚴達

昨二十六日만市內七八處火災 舊歲暮와火神團束

어느듯 겨울도기퍼서 건조의상승을달리는 찬바람의세력이 사나흘이나 시내에서만 오후여덟시에는 관지동(寬勳洞)이백사십칠번지에서 동십칠분에는 종로오정목에서 밤아홉시 이십오분에는창신동(昌信洞)사백오십칠번지에서 동사십분에는 창신동삼백칠십삼번지에서 이러케 련천하는곳에서전후 네번이나 불이낫고이바게도세곳에서 역시불이나서 소동해다이에도 경찰부에서는 중화의장소와 도시간등이 서로가운것으로보아서 흥은엇던자가방화한것이나 아닌가하야 관개경찰서에명하야 그원인을 엄중히조사하도록하는한편으로 관하의각서에 중합하야 금후초종이 남지토록 엄밀보경이 필요히화재를 경계하도록하엿다한다

市內各普校의 優良兒童表彰

경기도지방과의 금년아동장학회자금(獎學資金)사업규정에의하야 표창바들아동은칠십팔명이 작정되얏는데 그중조선아동은아래와갓다

校洞公普校 柳濬植 李淑鍾
齋洞公普校 朴榮組 金明娟
於義洞公普校 高光鎬 金福順
仁峴公普校 朴敏弼
水下洞公普校 房泰潤 申榮燮
貞洞公普校 李完吉 黃泰興
梅洞公普校 洪正杓 千年壽
渼洞公普校 吳永徹
麻浦公普校 宋永煥
德壽公普校 金正仁 朱準珠
龍山公普校 權重玉 崔熹南
昌信公普校 金鳳泰 全鋼華
壽松公普校 李容瑚 徐德基
孝昌公普校 鄭熙鐵 李大乘
東橋公普校 金相振 金春子
淸雲公普校 鄭弼永 朴樹弼
竹添公普校 李東谷
惠化公普校 李徹宰 白正龍
京城三興普校 李元爀
協成普校 張貞泰
同德女子普校 李載琬
啓明普校 金鍾烈 崔周一
攻玉普校 趙永行 孫貞順
加明普校 鄭然奎 朴濬男
長憲普校 金斗鎬
培花女子普校 申孝南
東大門女子普校 南基玉
和光普校 鄭景俊 金泰順
幀仁普校 金鍾國
華山普校 韓東奎
新明學校 卞東燮
桂山普成學校 朴奉玉
養英學校 鄭甲善
槿花女學校 姜順業
大東學校 桂勳範
泰和女學校 金昌順
南上女工技藝學校 崔貴季

惡舍音行狀列擧 路傍에大書公告

咸安郡北地方의小作人들의 ―爆發된숨은不平―

【咸安】 수일전에 함안군 군북역전(郡北驛前) 엇든길가에 악사음의 행장을렬거하야 공고한사건이 잇다―그내용은 함안의 글지거부인 안상수씨의 사음 안×옥(安××)이는전귀 지주소유토지의일부로함안군 북면에잇는것을 다년간관리하여 오든바 소작인을 교모히착취하기까닭에 가을타작 마당에서 소작인들은 비×자리한개만을 고도라갈다름이니 이런사음 에게는 엄벌을주리라고하고 끗헤는당국의 취재에 무성의함까지도부언하엿다는바 농지령의 실시초긔에 잇서서 지주대소작인의 리해관계가 가일층 첨예화한이때에 악덕지주와사음들의발호는심히주목된다고한다

▽―【日曜의冬日!(漢江橋上에서)】―▽

日光氷上大會의 朝鮮軍制覇記(下)

本社東京支局長 金東進 記

風速의關係함을무릅쓰고 五千米에 一位를占한 「至誠」金正淵君의 記錄八分四十五秒九라함은 實로 東洋人으로는 驚異的記錄으로世界十位中八位를차지하엿스니 이로써벌서 우리金君은國際的存在가되엿다。

五千에新記錄을지은 우리金君은 千五百米에도 李聖德君의 領域을 侵犯하야 二分二十八秒라는 亦是 驚異的記錄으로 一位가되엿다。期待되든 李聖德君은 滿洲의 河村君에게까지 二位를 빼앗기고 二分三十一秒二 라는 記錄으로 三位에서게된것은 同君의 退步라함보다는 君이最近에너머 金正淵君의五千米나一萬米를따르기爲한 새走法에의轉換때문에 이르킨失敗나아닌가한다 何如튼中距離까지에 金正淵君이 完全히進出하엿스니 이는專門家에서도 想像하지못한바이다

◇

一千五百米까지의 成績에依하야 十四位까지록해보아 一萬米決勝에 들게된結果

1 〔安重熙 潤間弟〕 2 〔宋山 木谷德〕
3 〔安達 河村〕 4 〔張萬植 李仁淑〕
5 〔石原 南洞〕 6 〔金正淵 李聖德〕
7 〔井明洙 潤間兄〕

以上의次例로달리엇는데 其中人氣의焦點은 長距離의 覇者金正淵、李聖德兩君의 對戰이다。바람이 조곰잇섯스나 내려든눈도멋고 比較的으로 조혼컨듸슌이엇다。戰鬪의 興味는 金君이果然 얼마前에지혼 인러칼레지의記錄十八分四十六秒九를 突破하야 얼마나한 新記錄을지으며李君이 어느程度로 이에追進할까함이엇다。金君의 戰鬪를살펴보면 四〇秒、四五、四一、四三、四四、四三、四四、四六、四六、四六、四五、四五、四四、四五、八、四五、四四、四四、四四、四五、四四、四五、五、四四、四四、四五、四〇 이라는 라푸타임으로 平均 四百米一週를 四十四秒로 畢竟十八分二十四秒五라는 大記錄으로 自己가지혼 前年의記錄(十九分二秒八)과 얼마前에지혼 인러칼레지 競技를 훌늉히 깨트리엇다。李聖德君은 第五週까지는 가든라임으로돌맛지마는第六週金君의 라푸타임四三秒에二秒를떨어지기 시작한것이 係數一秒二秒式 떨러지다가 結局엔 金君보다 三十九秒나떠러지어 十九分三秒八에 닿아第二位를차지하게되엇다。

金李兩君의 對戰時엔 酷寒을무릅쓰고 數萬흔 觀衆이南部코스週圍에 둘러서며카폰으로 旗를 내어 敵、同志를 勿論하고熱을다내어 聲援하엿다。滿洲軍도엄섯고中部、北海道도업섯다。實로英雄을돕는 純情이잇섯슬뿐―『金君世界新記錄을지어라』하는소리가 놉아지뒤를이어『李君!金君!』에 떠러지지말어라」하는배짝이場内를 뒤흔드는듯하엿다。그사람이 金君이나聽援 李君도聽援로눈물겨운 情景이엇다 오직스포츠에서만볼수잇는 光景인가

金君의이기는 秘訣을들어보앗다 君은體力이조화서그런가 도그러치안흐니 體力이나 품으로보아서는 或은 李聖德君이나흘는지모른다。그러면무엇일가? 金君은 그날一萬米를練習한다고나서면 如何한障碍가잇더라도一萬米乃至一萬米以上을 꼭뛰고야말엇다고한다。普通사람은 假令五千米를 豫定하고나섯다가도 或은中間에 匹落休息도하고 또는 折半이나三分之二쯤으로 休止하고말미 常例임에比하야엇지偶然한成果이랴 年二年日本選手權을 어드이 當然하다하지 안흘수잇스랴。

金君의 무서운決心에比較하여보면 다른選手의遺憾된이 만타 金容植君、金永吉君、崔昊在君等이長途旅行의疲勞、營養不良、氣溫變化모든컨듸숀이 조치못하엿슴은깁히同情하는바이나 萬米入選與否를不顧하고 이미出場한以上엔千五百을달어봄이 貴重한經驗도되지안헛슬가한다。

×

二十三日競技가끗나고 우리朝鮮側選手와 朝鮮各社記者가留宿한谷舍大野館에서 出場朝鮮選手와그關係者全部의 懇親宴이열리엇다。金正淵君이란竹山宮銀盃에麥酒를가득부어 祝盃를돌고萬歲를불으고 所感을말하고 웃고울고하야二時間을 感慨깁히즐겻다 이또한異域의 感激가아닌가(끗)

◆◆運動競技◆◆

神宮氷上第二日 三務優勢

江界金少年의活躍

第十回朝鮮神宮競技氷上大會第二日은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市外漢江里 링크에서열리엇바 이날正午까지의戰績은다음과갓다

男五百米決勝
▲1邊成夏(三務)五一秒九
▲2金河吉(江界)五四秒八
▲3金勳浩(三中)五五秒
▲4宋在鳳(普成)五八秒
▲5金吉星(咸興)五九秒

男千五百米決勝
▲1邊成夏(三務)二分五六秒四
▲2金河吉(江界)三分一秒
▲3金勳浩(三中)三分一秒四
▲4金承灝(三務)三分八秒三
▲5金吉星(咸興)三分九秒七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北中國에잇서서 七七五미리를보이며 이로부터氣壓은 朝鮮을거처 日本方面으로低下되어잇다 南中部는호리고其他는 日氣가조코 바람은弱하다 氣溫은木浦의零下二度와中江鎭의零下二十九度의사이에잇서明日은 日氣가조타

昨日最高 零下 二度六
同 最低 零下 九度八
今朝最低 零下 十二度三
今日正午 零下 三度八

楚山公普校主催 婦人夜學盛況

【楚山】 평북초산공립보통학교에서는 초산군교육회와 초산유림의협의를 종합하야 문맹으로헤매이는부녀자를위하야 지난해 십이월일일부터 초산향교에서 부인야학회를 개최한바 응모생이백오십여명에 달하야 개학한지이개여월에학생중 결석이업슨것을물론「ㄱㄴ」도아지못하든부인들이발서간단한편지를 쓰리만치 진취되얏스며선생은 초산보교선생중 다섯분을선발하야교수중이바선생측에서도또한성심성의로 매일성력을 다하야 종일일반은 감사하는바이며교수과목과 선생씨명은아래와 갓고야학회종료기간은 오는 이월말일까지라한다

先生氏名―白文榮 金洛浩 金蘭洙 鄭永澤 金俊敎
科目―朝鮮語 國語 算術

第二回 全朝鮮女子氷上大會

競技種目 二百五十米 五百米 千米 千五百米 二千米障碍

日時 二月二日午後一時
場所 漢江人道橋下特設링크
申請 一月卅一日까지 京城府齋洞培花女子高普校內 徐恩淑氏에게로(參加金不要)

主催 朝鮮女子體育獎勵會
後援 朝鮮體育會 朝鮮日報社

도덕과종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도덕상 의무만 잘 이행하야 다른사람에게 미혹을 끼치지 안흐면 그만이지 종교라는것이 무슨 필요이냐』하는 일이 만흔것이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듯도 하지만은 실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도덕이라는것을 그러케 잘 지키는것이 쉬운일일가 조흔것이줄 알고도 그대로 행치 못하는 우리 인간은 분명히 장님이 안인가 자기의 장님된것을 스사로 깨닷지못하면 몸으로거니와 자기가 무능한 장님이나 마찬가지인줄 알면 그러케 말하지못할것이다 장님이 사람 총중으로 걸어 가는데 다른 사람과 충돌이되지 안토록 잘 것는다고 그것이 만족할것이랴 자기의 눈을 뜨고완연히 걸어 갈수가 잇서야 한 사람 구실을 할것이다 이와 가티 종교는 사람에게 빗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바루 행할 긔능을자유로 활용하게 하는것이오 빗치 업고 생명이 업는 무능한 인간에게 남을 부드치지나 말고 잘 걸어 가라고 명령만 하던지 가르치기만 하는것이 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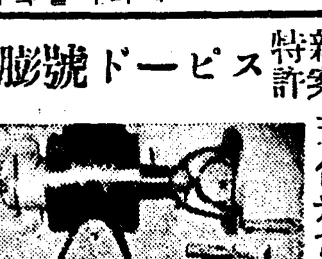
鄕土노래 懸賞募集 第一回

朝鮮十大都市諸歌募集

指定都市 京城、平壤、開城、釜山、大邱、木浦、群山、元山、咸興、淸津
【詞型】 民謠風이나 流行歌風이나 조흐나 그地方特色을如實히表現할것 三聯乃至四聯 (一聯行數無制限)
【資格】 當該都市及附近在住의人에限함
【締切】 昭和十年二月末日
【接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日本오-케-蓄音器商會 文藝部
【附記】 當選者에게는 弊社所定의稿料를進呈함
【發表】 弊社月報四月號에 發表하고 弊社作曲部에서 作曲하야 作者와 當該都市特約店에서 指定한 弊社歌手로吹込發表함 (當該都市新樂手를採用함도可함)

오케―레코―드

新案特許 スピード號膨脹機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五合米가八升된다 特價大放賣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製麵機中覇王 (カタログ送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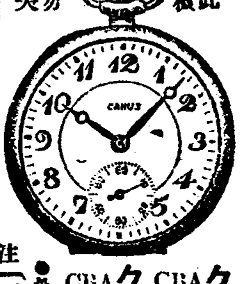
自一馬力至十八馬力 請求에二錢切手要함 特約商募集
◎中島式製粉機朝鮮總發賣元
朝鮮販賣元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Columbia 半島를振動식히든 朝鮮다령 姜弘植 아비렴를 드―코리

京城鍾路 和信아래層 電光 一三五九 三星堂樂器部

◎健康을保護하고……
胃腸에無害……
徐徐히解熱식히는―
이해부린丸과가른것을
참感冒藥이라한다
二○錢부터
大阪 北濱 參天堂株式會社

新春幸運 景品附大投賣(六百個限)



▲市價六圓內外
クローム側懷中時計16型
クローム側腕卷時計10型
クラウン工業所地方部

一服千兩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京城 金銀 地金分析 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民刑事誠實取扱 辯護士 李宗聖 京城府敦義洞 電話光化門二一九六

浪花館 明治町
一月二十二日부터 本邦ターザンの大賣力!!
上映目 一、朝日ニュース 二、MGM特作日本版
監督 チャールス・ブレイビン
主演 フランチョト・トーン モーリン・オサリヴァン
▲胡蝶となるまで
▲類人猿ターザンの復讐

團成社
青年 全三卷
사랑의嗚咽
死線突破

普校卒業生에게 滿鐵各校開放要求
在滿朝鮮人發育上重大問題
奉天居留民對策講究

【奉天】만철연선(滿鐵沿線)에잇는 조선인보통학교에서 매년수만흔 졸업생을 내이고잇스나 그들에게는 그이상으로 공부할길이막혀 이는재만조선인교육상 중대문제이므로 이대책을 강구중이든봉천거류민회(居留民會)에서는지난번철로총국(鐵路總局)에요망하야 철로학원(鐵路學院)에조선아동의 입학을허하게되엿슴을 계기로 금번다시만철본사(滿鐵本社)에요망하야 만주공업전문학교 부속공업실습소(滿洲工業專門學校附屬工業實習所)와 육성학교(育成學校)철도교습소(鐵道敎習所)무순(撫順)본계호(本溪湖)의공업실습소(工業實習所)등에 조선인아동의입학을허하게하도록하고 요구구체안(要求具體案)을작성중이라는바 이것이 실현되면재만조선인 아동의 상급학교입학의길이 개척되는동시에 그졸업후의 취직의길도열리게 되리라고한다

洪原에大火災
損害額은約一萬圓

【洪原】함남홍원읍에서는 지난이십오일 오전일시경에 돌연대화재가일어낫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알아보면다음과 갓다 ―발화하기는 시내어시장통김호련(金鎬鍊)씨집에서 일어나서근처집까지 연소되엿는바 시기가동절인만큼수운(水運)의불편으로말미아마 진화하기가 매우 곤난하여결국은동오시경에서 홍원소방조의 부녀회의노력으로서진화되바 손해액은약일만여원가량이며 발화의원인은방금홍원서에서 엄중조사중 이라한다 특히화재보험액은 팔천오백원이라고한다

楊口郡民向學熱
農村夜學五十處
坊坊谷谷에讀書聲

【楊口】「아는것이힘! 배워야 산다!」느라는〃會로간〃으로 강원도양구군내에서는 각면을통하야 오십여개소에서 농촌진흥 야학회를개최하엿슴으로 읍이든곳마다 방방곡곡이 글읽는소리가 랑랑하다하며 특히 만흔농촌진흥회로 양구읍내부인회에서는 당지유치원 내에서 최효경(崔孝敬)씨와 수씨의열심교수로 가정부녀자가 오십여명이나 수강을한다는데 일반인사의충송이자자하다고한다

掌議選擧問題로 一般儒林憤慨

【高原】함남고원군에서는지난십오일에 향교(鄕校)에서 장의선거전(掌議選擧戰)이 잇섯는바 그에대한 군당무자들의 태도에대하야 일반유림이 여실히규탄하고 잇다는데 이제 드른바에의하면 군당무자와문묘직원이 구회(鳩會)를 하여가지고 장의선거위원을 각면에다섯사람식 선발하라는 공문을지난사오일경에 발하엿슴으로 각면에서는장의의 선거위원이 되겟다는뜻으로 각면에서 선발된 일원이지난십오일에향교에모하며 장의를선거한결과 군당무자들의선거방법이투표제로되엿는데 그내용을보면 제일후보제이후보란것을 투표용지 에다가 인쇄하여가지고 각한사람이두점만쓰기로되여 결국개표 하여본즉 전부가재임후보에는 자기일흠을써너엇기때문에 재임후보는 거개동점이되고 제이후보는 일이점차가 잇게되엿는데 그투표제는개표만하게되자 다점자는 뒤에도불구하고 군당무자들은 그것을거더가지고도라가서 십여일이 넘도록한항의소식도업시 이날까지 끄러온것이 이상하다고 일반유림은대분개하야 발표됨을보아 선거방법의 결함을규탄하는동시 도당국에까지 진정하리라고한다

妓生殺兒事件
腦溢血로判明

【義州】의주군주내면어적 [illegible]

安邊警察署에서 又復靑年數名檢擧
思想書籍과 謄寫版等도押收
某種秘密會合綻露?

【安邊】함남 안변경찰서 고등계(安邊警察署高等係)에서는작년십일월중순부터 군내각처에서 사상관계 청년들을칠명을 검거취조한바잇섯는데 저간대부분은 석방하고신고산(新高山)에서온 청년 황재섭(黃在燮) 김재관(金在觀) 두사람만 [illegible] 는 지난이십사일에 돌연긴장미를띄고 형사대가 학성면미현리(鶴城面美峴里)에출동하야 김병오(金秉五)라는청년을 검거해가지고도라온후 무슨단서를어더든지 그이튼날아츰에 다시미현리에 출동하야 전긔 김병오, 리의 집을 수색하야 사상서적다수를 압수하엿고 뒤이여 전신간회안변지부회장(前新幹會安邊支部會長) 신경상(申敬相)씨를검거하는동시에 역시가택을수색하야 서적과 등사판등을압수해갓다는바 동서에서는 사건을극비에부치므로 내용을 알길이업스나 사상서적등을 압수해가느니만큼 모종의비밀회합사건이 나안인가추측된다고한다

學生慰安― 童話大會開催

【義州】의주서교회(西敎會)에서는농촌야학부를설치하고여지적동중의무산아동지도에 노력하여오든바 지금에학생수도일백사십여명에 달하야공전의성황을이루엇는데 동야학부의간부들은 학생들을 위안키위하야 오는이월이일에 동화대회를열고 일등부터 오등까지후한상품주는동시에 일반 학생들에게도 박사품준다고한다

道出人記者團 道內形勢視察

【釜山】경남도청출입긔자로써조직되여잇는 경남긔자구락부 에서는도내정세를 시찰하려고 그제일차시찰을 지난여름에 대홍수의피해지방인 김해군(金海郡)을 선택하야 이십칠일에출발 하리라는데 일정식 락동강연안과 홍수때파열된 대저면덕두리(大渚面德斗里)제방복구공사 현장과 대저수리조합수문왕릉(首露王陵)등지를시찰하야 일후참고에공하리라고한다

라디오

一月廿七日(日曜)

◇午後六時 (東)管絃樂(新響附) 一、기미가요 東京라디오오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歌謠 一、羽衣 二、弄 三、羽衣 [illegible]
◇同八時 俗謠 一、[illegible] 二、날니리야 三、[illegible] 四、淸川江水 五、자진난봉가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浪曲古談 其他

一月廿八日(月曜)

◇午後〇時五分 京城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제비가 四、執杖歌 五、[illegible] 歌 李飛鳳 李素玉
◇同二時 家庭講座 入學兒童을두신家庭에 京城府學務課
◇同六時 童話 이상한보작이 沈宜麟
◇同六時二五分 經濟講座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講話 [illegible] 李[illegible]
◇同八時 西道歌謠 一、[illegible] 二、新아리랑 三、도라지打令 四、[illegible] 五、[illegible] 閔亨植 許英淑
◇同八時三〇分 浪曲古談
◇同九時 管絃 寶山會 [illegible]
◇同九時(?) 피아노獨奏와獨唱 [illegible]

一月二十九日(火曜)

◇午後〇時五分 歌謠(레코―드) [illegible]
◇同六時 童話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七時三〇分 講話 [illegible] 金龍燮
◇同八時 京城歌謠 一、[illegible]

曆

一月廿八日(月) 舊十二月(大)廿四日 甲辰·火·畢·平
▼小寒 六日 (第一日)
▼大寒 廿一日(第十七日)
▼朔 十九日(第十五日)
▼月食 十九日부터廿日에

新谷新七等送局
三名拘束、四名不拘束

【元山】루보=안변서에구인중이든 신곡신칠(新谷新七)외륙명에 관한 범죄사건은 지난이십사일에 취조를마치고 신곡, 관원영, 김운룡(金雲龍)등삼명은 구속의견을부처 이십칠일오전십시이분원산착렬차로 원산검사국에 송치되엿고 대촌결차랑은 안변서에서 석방되엿다고한다 그런데 그들의죄명은사문서위조, 사긔, 공무집행방해등이라한다

警察署移轉反對 住民代表陳情 交換條件을提出

【統營】통영군거제도는 조선제이의 큰섬인만치 종래도립봉천구역으로되며 거제경찰서는 거제구읍(邑)에 설치되여 잇든것인대 근래동도의중심지로되는 장승포(長承浦)가 날로 발전됨에따라 경찰서를장승포로 이전하리라는 문제는수년전부터 말성되여오든바 금번에도당국에서 돌연히 경찰서이전결정을 발포하얏다 이소문을들은 거제읍은 크게놀래여 이문제는거제지방의 치명적타격으로 그저묵인할수업다하야 주민의총의를 도당국에 진정하기로되어 거제읍 부근비면의 대표로 김영수(金榮洙)외오인이 상백여명의 서명한진정서를 휴대하고 지난일일에상도하엿다는데 그진정의 요지는경찰서이전에대한 교환조건 두가지로다음과갓다한다

一、巨濟、東部、屯德、沙等四面을區域으로한駐在所에日本內地分署長과絹한補佐官가진首席을置하야 警察署의待遇를與할것
一、이것이不許되는境遇에는右四個面을統營警察署에編入식힐것
一、道路로서巨濟의繁榮과巨濟邑內에簡易農校設立을할것

歲饌配給活動 楚山面窮民에

【楚山】평북초산군초산면에서는 구세말을당하야 빈궁민에게 쌀과세찬을 배급하기위하야 시내일반유지자를 면직원이 호별방문하야 긔부금을 모집하는일방 궁민의정도를철저조사중이라한다

新春漫談大會 本社平壤支局主催

【平壤】본사평양지국에서는만담대가신불출(申不出)씨의 래평을긔회로 이십팔일오후 일곱시삼십분부터 백선행긔념관에서 신춘만담대회를 주최케되엿는데 장소정리비로서 십전식 박기로되엿는바 만히와서가리우스서 구년말의 시달니는 머리를위안시키기를 바라며 이밤의연제는 다음과갓다

―演題―
第一席 雄辯과야지
第二席 乙亥와朝鮮

朝鮮流行歌手 聯合演奏延期

【平壤】전보 전화량악긔점주최와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이십팔구량일간 금천대좌에서 개최하기로되엿든 조선유행가수 련합연주회는 출연가수의 피치못할고장으로 무기연긔키로되엿스나 오래지안은 장래에그러 계획을수행코저로려중이라한다

優良兒童表彰

【白川】황해도배천공보교에서는 지난 이십륙일오전십일시부터동교강당에서 황해도아동장학자금사업규정에의하야 우량아동표창식을 거행하엿다는데 표창을바든 생도는동교륙학년최장환(崔長煥)(一三)군이라한다

地方人事

▲黃相八氏(安邊郡衛城面長)新任人事次去二十五日本社安邊支局來訪
▲李國憲氏(安邊警察署巡査部長)新任人事次去二十二日本報安邊支局來訪

依然眞假모르는 벙어리의珍公判
이번에는盲啞敎授를招請通譯
現代科學의大辱恥?

【釜山】김해군대저면(金海郡大渚面)김덕룡(金德龍)(三九)는 살인강도혐의자로 마산서(馬山署)에 피검되여 제일회심문을 맛친후 제이회심문부터 우연인지 고의인지 말문을닷고 벙어리가되여 버린채로 부산검사국으로 송치된이래 미결감에서 구년간이나 지나고 재판장이 변경되엿거시 사대(四代)재 나리는괴이한 재판사건은 루차보도한바잇섯거니와 작년구월 제사대재판장 등본(藤本) 재판장이부임하자 제사회공판을개정하야 심리를하여보앗스나 벙어리인 김덕룡과의 언어가불통으로 의연미결로지나오다가 경성제대(京城帝大) 구보(久保)박사의 정신과 생리감정을 바더보앗는바 여의치못하야 다시경성제생원(京城濟生院)맹아교수 진고도(秦高道)씨를 초빙하야 통역할작정이라는데 회가 통하게되면 끈끈계속공판을개정하야 사실심리를 하리라고한다 동사건의내용은 소화이년 사월이십칠일밤 창원군구산면마통고개(昌原郡龜山面馬統峙)에서 소(牛)를 사가지고도라가든 남해군이동면 룡소리(南海郡二東面龍沼里)제지길(諸智吉)(三九)을 살해하고 소를빼아서 팔어먹엇다는살인강도사건이라고하며 평소에 말하는사람이 범인은영의벙신고 일시에말문을 다처사실심리를 할도리가업게된 괴이한사건이라고한다

新義州大火災는 保險詐取의放火?
警察은繼續取調中

【新義州】긔보=이십오일오전령시 이십분부터 약두시간동안에 신의주에서 제일번화한거리상반정(常盤町)에서큰불이 이러나 큰상점네채를태워 손해가 만원을 내엿는데 이화재의원인에 대하야 의심되는 점이만히잇서 신의주경찰 서에서는 오륙명을소환취조 하얏스나 원인을알수업는데 불이처음난 어느 오복상점의주인촌안정차랑(村岸政次郞)은 계속하야 경찰서에류치하고 취조중이다 그런데이 촌안(村岸)상점은화재보험에이만 오천원을가입하얏는바 화재 보험에탐이나서 이 화재를 한것이 안인가하는의심을한다고한다

道內災民救濟로 四百餘圓金醵出
伊川郡民의特別同情

【伊川】강원도는산이만흔곳으로 작년의 지리한 여름장마는산골농민의 생활상일대치명상을 당하게 되엿다 그런중작년여름의 이재민들은 엄동에당장 식량이떠러져살길이 막연함으로 도당국에서는 도내유력자들을 망라하야 도내궁민구제금을 모집하던바 이천군에서는 군내유력자중 다음과갓티구제금을거출하엿다고한다

▲百圓李鍾夏 ▲五十圓式金永右 方延植 李景裕 ▲三十圓式 北村熏三 朴台朋 金顯河 ▲二十圓式金敎胤 尹敎炳 李周雨 宋金俊 ▲十圓金炳培

奉靑夜學開學 지난廿三日부터

【奉天】만주사변이후봉천의조선인인구는 날로격증되어 현재는 이만오천의인구가 거주하고 잇는데 교육기관으로는 겨우 두곳의보통학교에 일천이백명의 아동을수용할뿐으로 그여수천의 학령아동이 미취학으로잇고 그의수만흔 무식청년대중이 배울곳이 업서서헤매이게됨을 통탄히생각한 봉천조선청년회에서는 그동안청소년 야학을개최하려 준비중이든바 지난이십삼일부터 당지북시장 보통학교(北市場普通學校)교실에서개학하엿는데 일반인사의 긔대가크다하며 동청년회에서는 청소년제군의 다수입학을긔대한다고한다

中之島民大恐慌
木材剝皮防止되면
木材組防止를陳情

【新義州】압록강중의중지도(中之島)는압록강상류의목재집적지(木材集積地)로 [illegible] 이곳에 사는 목재가일년간 약삼십만척세나되는 목재의세공민 이백여명은 강안에쌓혀 있는 목재의 껍질(木皮)을 벗기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곳압록강목재 산업조합에서는 수일전여원회를 열고나무껍질을 벗기는것은여러가지 조치못한 폐해가잇다하야이를 방지하기로 결정하고고방법으로 목재박피방지(木材剝皮防止)에관한진정서를신의주 경찰서에제출하얏다 신의주 경찰서처단이엇지될는지아직알수업스나

密輸의國境 (八)
鴨江沿線二千里는 鹽密輸의策源地
原價八九十錢에稅金이六圓
鐵橋上에老婆群이作隊密輸
國境에서 活海生記

朝鮮內의取締 絶對防止不能

일면조선안에서는 이와가티 만흔소곰이 외국으로 밀수출이되여도 관헌으나하면결코 그럿치안타 조선에도 소곰이 부족되야해마다 외국으로부터 가공(加工)한 소곰이수입되는 터임으로 조선전매국에서는 극력이를방지 하는중이다 밀수방지책으로 전매국에서는 지정매팔인조합(指定賣捌人組合)을설립하고 또소곰을팔때에는 그가는곳을 신고케하며 배로운반하려는사람에게는 그착륙장을 미리지정케하는등 소곰의소재처를 명확히할뿐안이라 세관리가 제일선에서서 경찰과세관의 협력을어더엄중한감시를 하고잇다

그러나 소곰은담배와가티 단행법(單行法)으로취체를하지못하고 전매국은 다만판매와관리를할뿐이다 그리하야 밀수출에대하야는 세관에서관세법 제칠십륙조에의한 허가업시수출하는 물품으로 인정한후 행정처분(行政處分)으로 소곰가격의 일할을 박고 허품도 압수하지안는것임으로 밀수자에게는 별로큰위협을 늣기지안케된다 그리하야 소곰은배로 짐으로 작고가저가게되고 또만주국사대가 아모리눈을흘드고 밀수를 방지한다하여도 압록강유역은 이천리의 망범한지역을 도저히완전하게감시하기는불가능한일이다

그뿐 아니라밀수자들의 새방법은 별별방법을연구하야 결사적으로 하는일임으로 그취체는용이한일이 안이다

鴨綠江을溯上하는 戎克船의密輸光景

소곰 지정매팔인(指定賣捌人)으로부터 압록강상류로지로 간다는 고 거즛 륙양신(陸揚申)을 지정하고 창크(戎克船)의 배ㅅ전이 물우에 나칠거리도록 소곰을 갓득싣고 소곰에 돗을 달며 흑은 밀물에노를저어 유유히압록강을 거슬너올나가다가 해지기를기다려 만주인지 조선인지분간할수 업는 애매한강상에 닷을주고배를 먼출후 미리약속하얏든 매수인에게 신호를 하고 도밀정을내보내여 감시인의 동정을살피다가 틈만잇스면 종선을내려노아 소곰을 륙지로비호갓치 날느고 륙지에는 미리준비하얏든 태마(駄馬)가잇서 이를싯고오지로 운반한다 이것이 대량으로하는 소곰의밀수광경이다 만일만주측 관헌에게발각되는때는 「조선안에잇는데밀수란 엇젼말이냐?」고하고 항거하고 조선측 관헌에게발각되는때는 [illegible] 고말할다 흑은 감관한방을 리용하야

조선측 강던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야 짐을 푸고 로적(露積)을 하여둔후 감시하는틈을보아서 만주국으로 옴겨날느는것도잇다 그것이 밀수출하는이드리 엇절수업시 [illegible] 소곰인줄을 알수잇지만 다시배에싯고 지정지로가겟노라 하면어떠케 취체할방법도 업는것이며 더욱이 이룡은 [illegible] 강한부판에서 하는일임으로 검거를하기는 곤난한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

◇그런데 밀수를하는곳은짐을푸기가 편리하고 또그것을이로 운반하기에 적당한곳이안이면 할수가 업는일임으로 압록강연안중에도 소곰밀수출하는곳은 대개 작정이되여잇다 신의주 근처로는 압록강철교 상류중 중지도(中之島)와 하류에는 류초도(柳草島)부근이 소곰밀수장소인데 이곳은 감시가 너무엄중함으로 대량으로 수출하는소곰은이곳으로별로가지 안는모양이다 만포진(滿浦鎭)과 고산진(高山鎭)대안인만주국즙안현마선구(輯安縣麻線溝)를중심으로그상하류에서만 밀수되는

소곰은 매일 평균 삼천근 이상이라고그곳습사대(緝私隊)는 말한다 이곳은밀수에적당한 장소로 여러가지조건이 구비하여잇슴으로 대량밀수자는 대개이곳으로 모히는데 그짐부리는 방법이비상히신속하고 도륙자에서 가다리는 수인은태마(駄馬)를삼사십두가량식을 준비하얏다가 수십명이번개가티 소곰을메여 말께싯는데오륙백근의소곰을 오륙분동안에 말께실고다라난다 그민활한 련락과번개가튼 활동은놀나지 안을수업스며 간혹습사대와 충돌되여피차류혈의참극을연출하는때도허다하다

零下三十度嚴寒 鐵橋上의老婆群

창크선을 리용하야대량의 소곰을 밀수하는외에 신의주부내에 잇는 빈민계급의 로인부녀자의 손으로 밀수되는 소곰도적지안타 이들은 매일 밧부게리용하야 극히소량한두말내지 네다섯되식을 몸에감추고 감시원의눈을엿보며 철교를건너가는것인데 전혀이로서 그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사람들이다

소곰뿐 안이라 려의이잇든 전과와가치 만치안치만은 이에종사하는 사람의수효는 사오백명에 달한다고한다 원래자본이 잇슬리 업고 소곰 다되, 한말을 가지고건너가 삼사십전의 리익을 어드면만족하는것이다 이들을 철저히취체한다면 즉시 생활의방도를잃게되여서 사회문제가 일어날뿐안이라 할수업는이들이 다른방면으로부정한 행동을하게될으로 사회정책상으로도 고려할문제라고 당국자도말할만치 한편으로는 참 딱한사정이다

로파들이 이삼십명식떼를 지여 [illegible] 으로얼음을밟아매이고 전신을꽁꽁동여매고 보퉁이(소곰)를지고 [illegible] 그들속에서 감시원의 동정을 보고잇는것은 볼상하야 참아볼수가 업는형편이다 아모리 살기위하야 하는일이라할지라도 천지가모다 어름세계가된후에, 더욱 압록강의 어름섞인바람을 무릅쓰고밤을 새여가며밀수하는것을 엿보고잇다는 것은

그고심을생각할때 가엽슨생각을가지지안을사람이어디잇스며 이와갓튼밀수녀자한명을감시원이발견하고그녀자를붓들어두엇다가 아중에보낸즉 그집에는 어미가 오기를기다리든어린애세명이한꺼번에 얼어죽엇다는참혹비참한이야기도 잇다 이와가치밀수란 극단생활을 하는이아모리만하다할지라도그리쉬운 영업(?)도안이다 다음에는 밀수에관한이야기를 하려한다 (계속)

今夜 廿八日 第一日
高麗籠球團招聘綜合籠球大會
午後七時부터 崇專體育館에서

高麗…崇實、崇專職員…全平壤中等職員
高麗…光高

◇主催 崇專YMCA體育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平壤 新春漫談大會

▲時日 一月二十八日下午七時半
▲場所 白善行紀念館
◇主催 朝鮮日報社平壤支局

……되어 지난이십륙일로 무사석방하고 서류만 검사국에넘기엿다고한다

당장에 숨이끗칠듯한괴로음 천식 완고한기침에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

筆生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盛文社

東洋에唯一인 注射와同效의內服藥
痛風、神經痛 류마치스 患者여러분게
藥野莊東京出張所

陸地의若人 十仙땐스 朝鮮劇場
金剛恨 俠血高鳴 踊子후이리스 第一劇場
幽靈刀 メリケン萬歲 エノケンの魔術師 類猿人다ー산의復讐 大正館
짜스킹後篇 伊達委辨慶格子 第十三番 優美館
木曾路의流星 郁珍外交 제비바行 桃花劇場

特輯 산에 오르자

登山은 壯快無比한 레크리에이숀……

朝鮮은山岳의疆土다 峯巒洞壑은우리의보금자리

詩歌와스포ー츠의本鄕을차저 젊은이여山에오르자

東洋人은 靜寂과幽玄을사랑하는族屬이다。그들의생각이그럿코 그들의哲學이그럿고 그들의宗敎乃至生活이그러하다。따라 그들은朝鮮 幽玄의本鄕인山岳을조하한다。그들의情의發露인詩歌를보매 그太半이山岳에關한게다。그림을하매 七分이峰巒에關한게다。그들은노래로 그림으로峰과峰을사고훑는 물읊고 그리고한것이다

東洋族

에서도 特히朝鮮族은 山을愛好한것갓다。太初부터愛好할 處地에잇섯든 까닭이다。어듸든지 돌아보아 秀美한峰巒과 深邃한洞壑이 업는곳이업는朝鮮이다。朝鮮은 山岳의領土다。朝鮮族에對한 朝鮮의山岳은새에對한 보금자리다。물고기에對한물구비다。

무릇聖岳

朝鮮族은 더업시山岳을 사랑한다。사랑하다못해 이를崇拜해오것이다。愛慕의情이 거의宗敎의 領域까지 이르럿다 할가? 무릇神山이잇다。

이잇다。敬虔의念이 거의그境域에投足하기를躊躇케하얏다。投足을하라면 모름직이 齋戒와致誠을至恭히한것이다。

이러한情은우리의山岳에對한敬崇의情의發露라그情이잇슴으로秀美한朝鮮山岳은 神聖한그맛조차象해진것이事實이다。

그러나 朝鮮의山岳은 朝鮮族이愛慕할寶貨가아닌가? 우리가뛰며놀 놀이터가아닌가、이것이

우리寶貨

나우리가、이것을앗기는것도소타 이것이우리의놀이터니 우리가이것을 淨潔케다스리는것도 可한일이다。그러나 우리의寶貨、우리의놀이터를 다만멀리서 瞻仰하고 崇拜하고 敬慕함으로만족할가 그寶貨의所有者로 그놀이터의主人으로 더그功美를누리는것이옳지 아니한가

이寶貨의 참所有者 이놀이터의 참主人일진대、모름직이 그寶貨의 갈피갈피를 살피고 그놀이터의 구석구석을차자限업시그功效와

그德澤을

누리는그들이되여야 할것이다

남들은 이미萬古의氷雪을 머리에인『앨프스』를征服하야『몬부랑』『매렐홀른』을굽흐롭굴리지안헛는가 남들은 이미世界의天蓋『히말라야』連峰을 덥밋까지기여올으고 그정수리를 날아다니지 안헛는가 남들은이미『피레네』를 짓밟고『록키ー』를踏破한것이다우리唯獨드러해야

萬尺高

가차지못하는 山岳을 바라만볼것이 무엇인고 우리도 山에오르자 먼저내려 의山을 집밟고 나아가 남의집 山도구경하자、

봄이거든 봄에오르라 그나즌모루 놉흔등말에或은일극푸르르고、或은붉게붉는朝鮮의草木과花卉를사랑하라、여름이거든、여름에올라、밤밋헤도는 안개와 머리우에싸인 雲貌를 사랑하라、瀑流의소리、鳥禽의 노래、우리의귀를 慰勞할 것이다 草花의香이 우리의 코를 고일것이다。가을에 山에오르라 滿山紅葉의景을 錦繡로 어이比하라 겨울의氷雪덥힌 峰巒을차즈라 그潔白과崇嚴이 靈魂의갈피갈피를 씨서줄것이다。

功利를超越한目的 無目的이登山目的

登山家의登山目的은 大槪功利를超越한것이다。意識的으로 이번登山엔이만한利得이잇슬것을豫測或은豫算하고 오르는일은적다 말하자면趣味가本位다。泉流의淸濁 空氣의淸淨 眺望의雄大 그崇嚴 幽深趣等을 貪해오르는것이다。或無形한功效라할가? 十數日山을타고돌아오면『이번所得이무어냐』집사람들이뭇는다내보일아모것도업다 살의검은것『망태』의 빈것이나내보일가 그들은 내검은살을보되 내넋을보지못한다。내비여진『망태』를보되 내가득찬 머리속을 보지못하는것이다。『無目的』은 登山의 目的이다。엇젠지올르고 십허오르는것이다。올으는것外에 더큰目的이 잇슬理업다。

그러나 구태여何等의目的을찾는다면 그런것도 업는것은아니다 업지안흘뿐아니라 너무만아枚擧키 未遑할地境이다。

一、保健의效、어느運動이 健康에조치안흔배아니나 登山이保健上가장조타는말은 筆者의말이아닌 一般의公論이다。

二、修養과登山、高潔、豪放、大膽、沈着剛毅한心性을 기르는데登山보다난것이잇술까、고리삭은修養書類를덥고山에오르자。

三、史實과登山、書籍에서본史實을그잇는곳에 찻는것은 짐거운일이다。或은 感興를타고、或은嗣宇에臨하야 그實狀을찻곳、그情景을느끼라、

面、動植物、地質學、地理、天文、鑛物을硏究하는者는 不得不山에올라야한다。

五、詩文과登山、이는結局山岳과文學의關係가된다。우리가 너무나잘아는事實이다。千里江山을眼下에노코一首吟이업으면 沒風致하지우다。

六、笑談이지마 狩獵을좃거든山에오르라、우숨게집힌놈하나가 그대의一攫千金夢을實現해줄지 모르는것이다。

登山과時期

山容이아름답지 아니한때가업다。딸아 登山의時期를 擇하는것은愚擧다。그러나 여름에올은 경은艱難다。겨울에는 눈과추위의걱정이잇다。외만한山이면 春秋가第一조타。諸山으론이때가最適이다。

冬山은積雪이만흐면 반드시스키ー術의應用이 잇서야한다。

큰山은 그時期가大槪여름이다。白頭山行도여름이가장조타。

登山에對한注意

一、떠나기에臨하야物品目錄을보며、다시한번携帶할物品을 調査하라、될수잇는대로、其簡하되重精이적게할것이다。힘에過하게지고떠나면、中路에버리게된다。

二、路費는남겨올요량으로넉넉히가지고떠나라

三、떠난後特히健康에操心하라。過食하지말고、便하게쉬고、물은가려먹고、行露丸가튼것을食後三四粒式服用하면조타。발이 부릇든거든하로길이 끗나는대로정히씻고、부르튼곳을바늘로찌여논後沃度丁幾를바르되、실은뽑지말라。

四、너머急히멀리것지말라、徐徐不息、沈着이登山의秘訣이다。

五、登岩은 壯快한일이다。그러나、有時乎목숨을걸고하는 冒險이다。自信이잇는곳外에는避하는것이조타。미리이方面의 書籍을읽고、練習을해보라、

六、毒蛇와猛獸를操心하라、獸患보다는蛇患이크다。여름이거든、부대脚絆을든든이치고、두터운靴中을껴라

七、여름에물을操心해야한다山물은맛타도流勢가急하다。비온뒤에越川에格別注意하라、서로줄을매고건느면危險이적다。

八、먼저그곳사람에게길을무르라必要하면案內人을求하는것이조타。

九、山에서돌을함부로굴리지말고돌을조심하라 이는登山道德이다。

一〇、同伴者서로의人格을尊重하야弄談가튼것은避하는것이조타。疲勞에神經이날카로와지기쉽다。

一一、가는곳마다謙遜하야登山者의德을보여야한다。傲慢橫暴하야鄕民을後悔케함은登山家의羞恥다。

登山에對한準備

될수잇는대로몸가볍게 必需品은充分히가지라

그날回程할程度의 登山이면別準備가必要치안타。輕裝에 한두때 먹을것만메고나서면 足하다。그러나 一週日以上 數十日或은數月을要하는本格的登山이면이에對한 充分周密한 準備가絶對必要하다。

一、健康問題。深山을지처돌어가라면、實로 非常한勞苦가必要할때도잇다。이런때、그勞苦에堪當할만한健康이登山者에게잇서야한다。多少라도 虛弱하면長期登山은避할것이다人跡이끈허진곳에서不幸히病이나면自身도괴로운일이나、同伴에게더업는累가된다。或生命에關係될지도모르는일이다。그러기에登山家가되라면 먼저平時攝生을잘해야한다。

二、먼저 오를山岳에對한文獻을읽어、그山岳에對한 歷史的文學的興味를 길르라、

三、必需品을 充分히準備해야한다。一旦山에든後엔 携帶物品外에 아모것도求할수가업다。大槪携帶物品의目錄을 作成하면 아래와갓다。

1、登山服 (카ー키洋上下、登山帽 毛製內衣二三襲 脚絆 長襪 短襪 靴中 手巾)

2、防水衣(簡單한레인코트』이면足하다。)

3、防寒具(『털담요』『스웨터』等 짐이아니될가벼운것을擇하라)

4、背囊 (모든것을 담을만한防水布製라야한다、모양보다實用을생각하라)

5、登山杖 (或업서조흘때도 잇스나 氷山에오를때 必要하고 深山에든後 護身의具가된다)

6、登山靴 (여름이면 籠球靴로代用할수도잇스나、冬山엔 반다시防水製의 登山靴가必要하다)

7、飯盒 (循除用의것이조타)

8、登山鍋 (알음用이普通이다)

9、水筒 (絶對必要한것이다 큰것을擇하라、或終日食水업는곳을 것게될때도잇다)

10、手箸 와컵 (엘미늄製가 깨질念慮가업서조타)

11、登山刀 (허리에차는 큼직한것이조타。鞘刀에든크고든한것을擇하라)

12、小鉅 (업서도조흐나 必要할때도만다)

13、山斧 (必要한때가만타)

14、『스템퍼』(쇠조흔것을求하라)

15、접등과洋燭

16、懷中電燈(電池의豫備를가질라)

17、針、絲、가위、종지게等

18、藥品과化粧品 (『옥도정기』『消化劑』『解熱劑』『암모니아水』『繃帶』『脫脂綿』『따린아』… 여름外엔必要치안타) 『面刀』『齒磨粉』『비누』『手拭』等

19、地圖(二十五萬分之一、五萬分之一 行程略圖—오르라는山岳의地圖는絶對로必要하다 떠나기前에미리求하야山勢와里程을調査하고、大綱의路程記를作成하라)

20、指南鐵 (深山에 들어길을 이것을때、또或濃霧에싸혀方向을모를때、指南鐵밧게依支할것이업게된다。)

21、呼角

22、『로ー프』(ROPE)(登岩時엔 絶對必要하다。登岩을아니하라면 짐이되니携帶치안허도조타)

23、細麻繩二十餘尺

24、紙筆類(原稿紙、封套、『잉크』萬年筆、『스켓치북』等……)

25、寫眞機 (『코대크』이조타、原板을 을앗겨쓰라)

26、食料品(中路에서 全然살수가업는곳이면 回程까지의것을全部지고가야한다。적어도 豫定日數보다 二三日分의 餘裕가잇서야한다。口味와 營養에딸아種類와分量을定하되、美食보다、滋養에置重할것이다)

27、天幕 (露宿을하라면、업지못할것이다。외만한山이면、大槪寺刹이잇서、방을드샐수잇다。먼저地圖로 寺刹有無를詳考하라、天幕은스토ー브와함께큰짐이된다。)

28、時計 (正確堅固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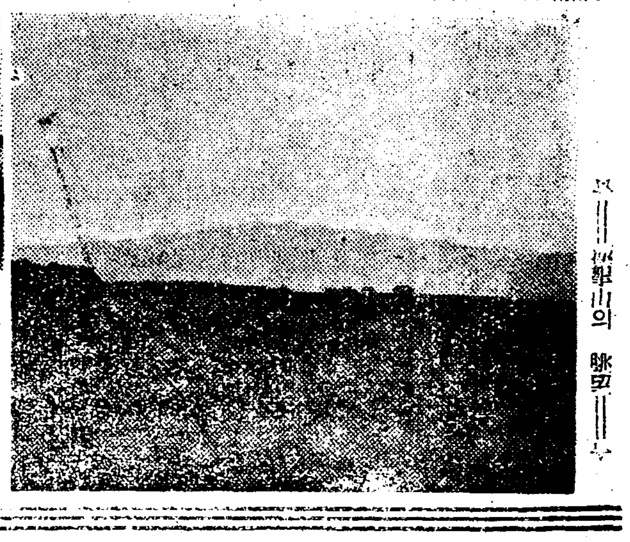
29、書冊 (무게적은二三卷이면足하다、詩集、紀行文學類의 本位의것이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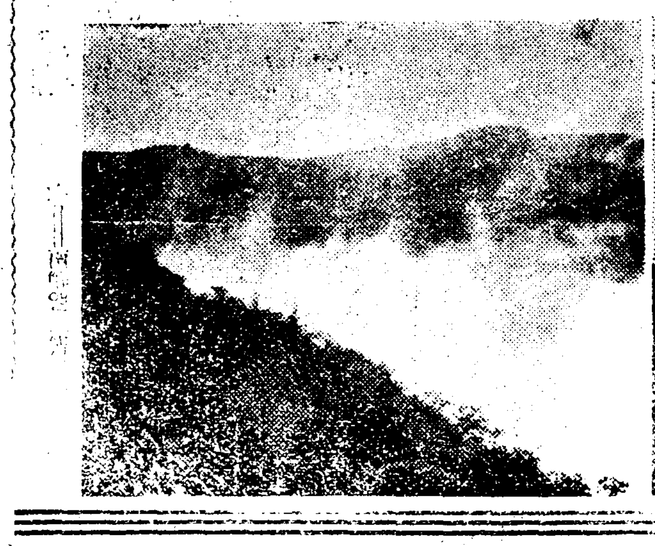
30、同伴者 (健康、趣味、體力이相似한三人以內가理想이다)

朝鮮의山岳

朝鮮은 山岳의나라다。어듸를가도山업는곳이업고、어느山에올라도아름답지 아니한山이업다。大綱名山만골러보자、

白頭山	咸北	二七四四米
北胞胎山	咸北	二二二九米
南胞胎山	咸北	二四三九米
冠帽山	咸北	二四五一米
大角峰	咸南北道界	二二二一米
大德山	咸南	二一二三米
稀塞峰	咸南平北道界	二一八五米
猛狹山	咸南平北道界	二二一四米
小白山	咸北	二一八四米
狼林山及蓋馬高峯	平南北道界	二〇一四米
東白山	咸南平南道界	二〇九六米
白山	咸南平南道界	一八三八米
妙香山	平北	一三九一米
鳳凰山	咸南江原道界	一八二一米
金剛山	江原道	一六三八米
九月山	黃海道	九五四米
五臺山	江原道	一五五六米
雪岳山	江原道	一七〇三米
北漢山	京畿道	八三六米
太白山	慶北江原道界	一五六一米
小白山	忠北慶北道界	一四二一米
日月峰	慶北	一二四八米
俗離山	忠北	一〇三〇米
德裕山	慶南全北道界	一五〇八米
加智山	慶北	一二四〇米
智異山	慶北	一九一五米
般若峰	慶南及全北道界	一七五一米
漢拏山	濟州島	一九五〇米





▲‖[illegible]嶽山의 勝景‖▲

山岳스포ー츠界 黃金兩權威 本特輯을執筆

草創期에잇는우리山岳스포ー츠界에잇서 養正高普黃澳氏와梨女專校金尙鎔氏는이方面에일즉부터만흔硏究와經驗을싸어 斯界의 權威者이다 本特輯의 原稿는兩氏의合力으로된것이다

暴風前夜 (74)

咸大勳 作　金熊超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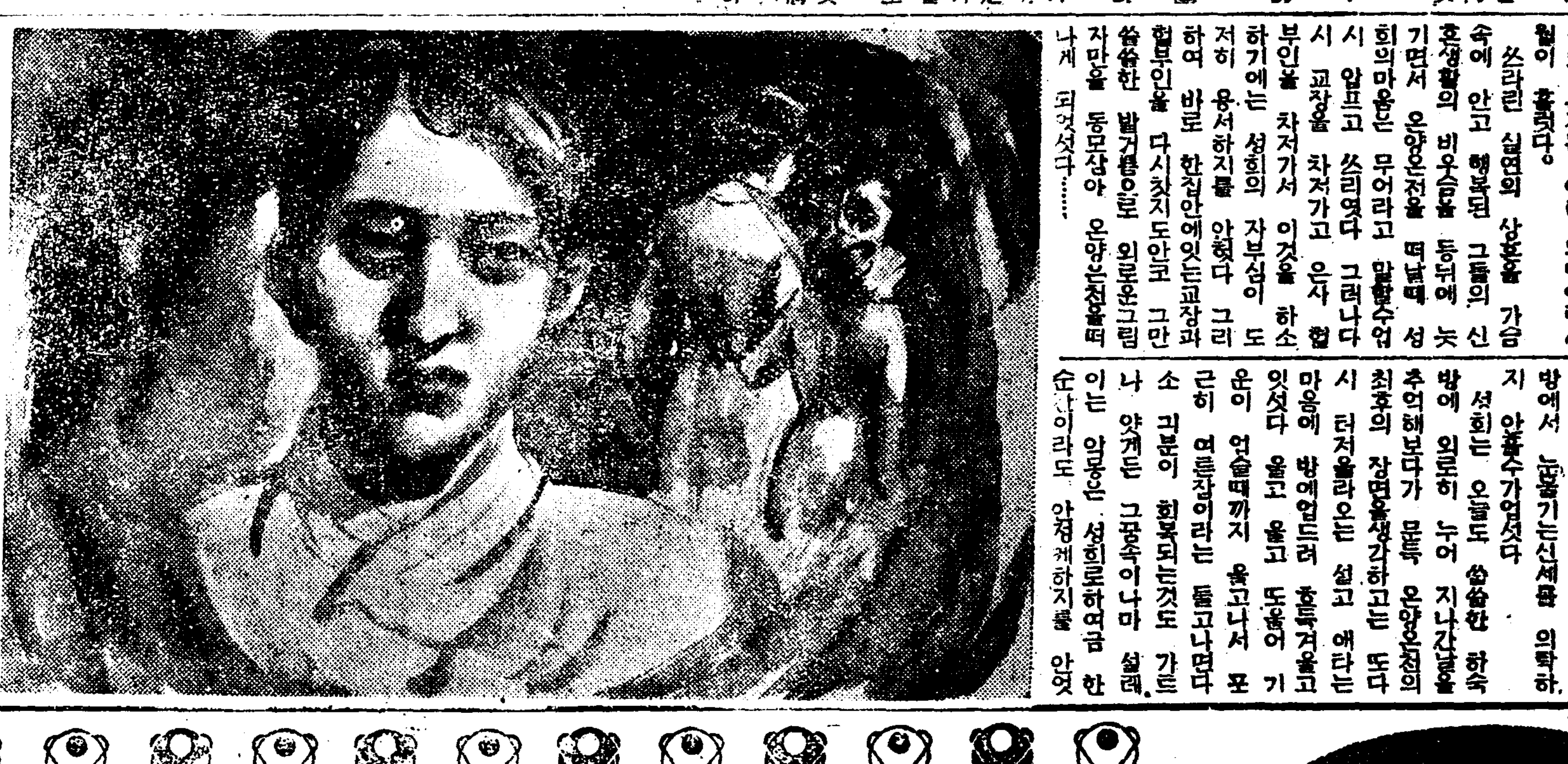
(해후)邂逅 (1)

성희가 온양온천으로 부터서울로 온지는 어언 두달이란세월이 흘럿다。

쓰라린 실연의 상흔을 가슴속에 안고 행복된 그들의 신혼생활의 비웃음을 등뒤에 늣기면서 온양온천을 떠날때 성희의마음은 무어라고 말할수업시 압프고 쓰리엿다 그러나다시 교장을 차저가고 은사 협부인을 차저가서 이것을 하소하기에는 성희의 자부심이 도저히 용서하지를 안햇다 그리하여 바로 한집안에잇는교장과 협부인을 다시찻지도안코 그만 쓸쓸한 발거름으로 외로운그림자만을 동모삼아 온양온천을떠나게 되엿섯다……

부모형제도업는 천애의 고아인성희인지라 하는수업시 쓸쓸한 하숙방에서 눈물기는신세를 의탁하지 안흘수가업섯다

성희는 오늘도 쓸쓸한 하숙방에 외로히 누어 지나간날을 추억해보다가 문득 온양온천의 최후의 장면을생각하고는 또다시 터저올라오는 설고 애타는 마음에 방에업드려 흐득겨울고잇섯다 울고 울고 또울어 기운이 업슬때까지 울고나서 포근히 여른잠이라는 들고나면다소 긔분이 회복되는것도 가트나 야게든 그꿈속이나마 설레이는 악몽은 성희로하여금 한순간이라도 안정케하지를 안엇



그러나 새봄[illegible] 성희는 마음을 도리켜가지고

서울도 올해도 벌서두달이 지나 이제는 새봄의보드라운바람이 봄살월 마롯나무가지를고히 흔들고간다

봄이다 이제는 희신히 봄이다 강남 천리길 멀리갓든봄바람이 옛집을 다시 차저온모양!눈싸힌 이신천에 차듸찬 바람도 이제는 그자최 만이남엇슬뿐 봄은 아즈랑이 아롱진 하늘에도 말리진 풀구루미테도 얼오부튼 시냇가에도 차저왓다 이리하야 싹트는 풀포기에 빳속한 새엄은 신생의회망을말하고 흐르는 시내ㅅ물은 보드라웁게 잔물결저행복의 미소인듯 고요히 흘러새봄의 행복을 말하고잇다 에스팔트위를 걸어가는 모껄의 스카ー트를스치는 바람도 보드럽고 하늘을 맴도는 소리개의 한가한 나래에도 봄귀운이흘르고 단장밋고양이의 우름소리에도 봄은 차저왓다

그러나 서울에 올다온 성희의 가슴은 캄캄하고 어둡고쓸쓸 할뿐 근십년이나잇든이 서울에 차저갈마한 친구하나 업섯다

물론 가장 친히 지내이든혜숙이나 오사감을 차자갈수도업는것은 안이엇지만 이쓰라린실연의 상처를 안고 참아 그들을 치자갈 용긔는 업섯다 그리하야 지나간날 학생시대 하숙하고잇든 서대문정 김과부집을 차조가서얼마를 주이려고하엿섯다

물론고창으로가서 얼마를수엇스면 조흘것이다 그러나고향은

「아… 나는모ー든것을 단념하자! 그리고 나는내압길을개척해 나아갈 도리를 강구하자!」하고혼자 어둥 컴컴한 방안에서중얼 거려도 보앗다。그러나 그것은 리지적으로 생각되는것이오 결코 성희의 감정은 쉽게시리 도라서지 안엇다。그리하야 생각의실마리는 지나간날리철이와 지내이든일 그리고 리철에게 두번이나 모욕당한 기막힌 추억이 머리를 떠나지안엇다!

新刊紹介

▲님의心琴(新詩調集) 著者金禧圭(主要目次)貧한것、春外春、내故鄕、一片丹心、달마지、金剛에들어等外數十篇 京城府堅志洞三三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六十五錢

▲一光第五號 朝鮮佛敎의精神問題、佛專과朝鮮佛敎와의關係等 京城府崇一洞二番地中央佛敎專門學校校友會發行 定價二十錢

▲セルパン一月號(新映畫の展望特輯)映畫ニ現ハレタ國民性、映畫ニ動ク時代性、映畫ノストウリ、日本映畫創作三題、風車人間的條件等 東京市麴町區三番町一番地第一書房 振替東京六四二三三番 定價二十錢

日本의標準品

レートクレーム

레 도 크 렘

젊어지는 淸白美容料

살결이 고흔 麗人은、愛情이 깁픔니다。

本品을가지시면 더진살、검은살、빩안살이 아조解消!

당신의柔肌、곁은더욱 더욱곱고靑春의꼿은보 송한빰에핍니다!

平尾贊平商店 —東京—